

화장품

Sep 22, 2025

아마존 '뷰티 인 서울' 컨퍼런스 후기: 미국 아마존 내 K 뷰티 성장 가속화 중!

Overweight

유지

미국 아마존 내 K뷰티 성장 가속화 중!

9/19 아마존 글로벌셀링코리아는 작년에 이어 K뷰티 컨퍼런스 '뷰티 인 서울'을 개최. 아마존 미국/일본/호주/라틴 아메리카 글로벌 리더십이 참석해 작년보다 높아진 K뷰티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줌. 올해 아마존 내 K뷰티 성과로 ① 미국 내 성장 가속화, ② 신규 브랜드 성과, ③ 카테고리의 확장, ④ 호주/중동/남미 등 글로벌 확장이 주목됨. ① 미국 성장 가속화: 최근 1년 간 K뷰티 판매 수량은 YoY 70% 증가해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. 지난 1년 간 미국 아마존 뷰티 고객은 약 1억명이며, 이 중 K뷰티 고객은 약 1,900만명으로 추산. 아마존 뷰티&헬스 카테고리 총괄 부사장은 현재 미국 아마존 뷰티 검색량 내 K뷰티 비중은 20% 수준이며, 연말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함. 아마존 자체에서도 K뷰티 전용 스토어 론칭, K뷰티 전용 이벤트 출시 등 적극적인 마케팅 투자를 진행 중. ② 신규 브랜드 성과: 2025년 아마존에 신규 론칭한 K뷰티 셀러 수는 YoY 두 자릿수 증가. 한편, 메디큐브는 수량 기준 10개 제품이 Top 100 내 진입, 판매액 기준 8개 제품 Top 100 진입. ③ 카테고리 확장: 현재 K뷰티는 70% 이상이 스킨케어에 집중되어 있음. 다만, 최근 메이크업/디바이스/헤어케어/이너뷰티 카테고리 가 증가 중임. ④ 호주/중동/남미 등 글로벌 확장: 최근 K뷰티 브랜드들이 호주/중동/남미 등 신규 마켓플레이스 진입한 직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 중임. 이는 K스피드 덕분에, 소비자 니즈에 맞춘 빠른 제품 대응력을 통해 글로벌 수요를 효과적으로 포착한 결과임.

유럽 내 K뷰티 성장 속도, 빛나다

닐슨에 따르면, K뷰티는 유럽 주요국 시장 성장률 대비 아웃퍼폼 중. K뷰티 스킨케어 YoY 성장률은 독일 39.6%(Vs. 전체 스킨케어(이하 생략) 4.4%), 프랑스 23.7%(Vs. -0.1%), 영국 40.8%(Vs. 10.1%), 이탈리아 108.7%(Vs. 3.2%), 스페인 70.6%(Vs. 4.4%) 시현. 또한, 각국 온라인 채널 내 K스킨케어 점유율은 독일 1.6%(YoY +0.3%p), 프랑스 3.0%(YoY +0.5%p), 영국 3.0%(YoY +0.7%p), 이탈리아 1.4%(YoY +0.6%p), 스페인 1.4%(YoY +0.7%p)로 확대됨.

에이피알 김병훈 대표, 성공의 답은 '소비자 싱크'



[음식료/화장품] 권우정
3771-9082,
20240006@iprovest.com

에이피알 김병훈 대표는 메디큐브의 브랜드 철학으로 '비가역성'을 강조. 한 번 메디큐브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사용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음. 한편, 메디큐브의 마케팅 비법에 대해서는 '소비자와의 싱크'를 강조했다. 제품을 출시할 때, 어떤 리뷰가 가장 베스트 댓글이 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, 특정 콘텐츠에서도 어떤 댓글이 베스트가 될지를 가늠할 정도로 소비자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이는 소비자와의 싱크가 잘 맞는 상태를 의미하며, 결국 중요한 것은 도구나 채널이 아니라 고객 이해와 공감이라고 언급했음. 한편, 아마존에 대해서는 '현대판 실�크로드'라고 표현했음. 미국뿐 아니라 유럽/남미/일본/중동 등 전 세계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며, 특히 미국의 경우 대다수 국민이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기 때문에 아마존에 진출하면 고객 접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강조했다.

■ Compliance Notice ■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.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당사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고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습니다. 당사 연구원 사칭 사기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전일기준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■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 ■ 기준일자:2025.06.30

구분	Buy(매수)	Trading Buy(매수)	Hold(보유)	Sell(매도)
비율	95.9	3.4	0.7	0.0

[업종 투자의견]

Overweight(비중확대):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
Underweight(비중축소):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

Neutral(중립):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

[기업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] 향후 6개월 기준, 2015.6.1(Strong Buy 등급 삭제)

Buy(매수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%이상
Hold(보유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~10%

Trading Buy: KOSPI 대비 10%이상 초과수익 예상되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
Sell(매도):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-10% 이하